

한국형 트위터 열풍... '스타플' 이 왔다

최근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트위터로 이어지는 글로벌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트위터의 성장 속도는 놀랄 정도로, 국내 트위터 방문자도 100만명을 넘어섰다.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로는 역대 최대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 미투데이가 트위터와 유사한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를 처음 제공하기 시작했다. 미투데이는 최근 NHN이 인수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마케팅에 힘입어 미투데이는 트위터보다 방문자수를 앞지르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마이크로블로그가 각광을 받아 이와 유사한 서비스가 너도나도 한국형 트위터를 외치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야고, 톱픽, 플로그, 런파이프 등 다양한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

사용자에게 '별' 부여... 스킨·아이템 등 꾸며 키워드 통한 일대기 기록·인맥구축도 손쉽게

가 트위터 열풍에 몸을 맞기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트위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국내에서 성공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

트위터는 해외 사정에 너무나 잘 맞춰진 서비스이다. 보급률 높은 스마트폰과 연결성 높은 무선 인터넷 환경, SNS가 대부분 무료라는 점 등 성공의 토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국내 서비스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트위터의 아성에 도전 중이다.

플로그의 경우 패션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런파이프는 지역과 장소라는 콘셉트로 같은 지역 사용자들을 연결하고 정보 생산을 도와준다.

최근 등장한 서비스 중 개성이 가



장 뚜렷한 SNS를 꼽으려면 단연 '스타플(www.starpl.com)'이다.

스타플은 우선 서비스 배경부터가 남다르다. 바로 우주다. 실제 관측된 별자도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별'을 주고, 사용자는 내 별의 주인이 되어 서비스를 이용한다. 자신의 별을 다양한 스킨, 아이템, 위젯으로 꾸밀 수 있고, 스타팻이라는 애완동물도 키울 수 있다.

스타팻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돋보인다. 사이트 안에는 '내 별에 나를 담는다'는 모토와 맞아



떨어지게 자신의 일대기를 담을 수 있는 타임라인이 주어진다. 최근 리뉴얼된 타임라인은 키워드를 이용해 더욱 쉽게 일대기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렇게 입력된 키워드는 다른 별의 키워드와 연결돼 쉽게 인맥이 구축된다. 스타플은 '별'이라는 소재의 매력과 '타임라인'이라는 일대기 제

작 톨을 이용해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많은 사람과 자동으로 연결이 일어나게 돼, 쉽게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교류하게 만드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싸이월드의 지인 인맥기반 서비스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스타플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소성렬기자 hisabisa@fnm.co.kr

매일 구글퀴즈 풀면 푸짐한 상품이

국내 최대 무료 종합일간지인 포커스신문은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과 함께 포커스신문 독자들을 위한 '제2차 포커스-구글 검색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구글코리아의 연간 마케팅 프로그램인 '구글검색으로 할 수 있는 100가지(www.google.co.kr/100things)'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홈페이지(event.fnm.co.kr)를 통해서 매일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에 누적점수가 가장 높은 1명을 선발, BMW 미니 6단 접이식 자전거를 증정하

며, 매일 정답자 중 13명을 추첨해 샘소나이트 미니솔터백(매일 1명), 구글 무드라디오(매일 2명), 스타벅스 1만원 상품권(매일 10명)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문제 : 부모님 집에서 나와 독립을 꿈꾸는 '나자유' 씨는 요즘 혼자 살 만한 원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원룸의 크기가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원룸의 크기는 약 몇 평 일까요?

▶보기 : 1. 12평 2. 15평 3. 18평 4. 21평



▶힌트 : 구글검색으로 할 수 있는 100가지 6번을 참고하세요.

▶문제 : 프랑스에 간 구씨는 흡연을 하고 싶는데 금연구역이 아닌지 금연 표지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중 'Non-smoking (금연)'에 해당하는 프랑스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 1. Non cracher 2. Non marche 3. Non-fumeur 4. Aucune photographie

▶힌트 : 구글검색으로 할 수 있는 100가지 11번을 보세요.

안철수연, 게임시장도 '철통보안'

'실크로드온라인' 등 솔루션 공급 잇달아

안철수연구소가 특화된 게임보안 솔루션으로 틈새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안철수연구소는 최근 조이맥스(www.joymax.com)와 계약을 체결하고, 조이맥스가 전 세계 약 180여 국가에 서비스하는 3D MMORPG(다중접속속행) 게임 '실크로드온라인'에 불법해킹 및 변칙플레이를 방지하는 게임보안 솔루션 '해설드 2.0(AhnLab HackShield 2.0, 해설드)'을 공급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조이맥스의 또 다른 게임인 '범피크래쉬'에도 해설드를 공급했으며, 조이맥스 포털사이트에 로그인 ID와 패스워드보안을 위한 키보드보안솔루션인 'AOS 안티 키로거'의 공급계약도 체결했다.

한편, 안철수연구소는 최근 일본에서 테크모, 코나미 등의 일본



주요 온라인게임업체들을 대상으로 게임보안 솔루션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에서 최초로 열린 온라인게임보안 세미나로, 이 자리에서 안철수연구소는 '해설드'를 소개하고 앞선 온라인게임보안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 노하우 및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현지 마케팅활동을 통해 일본을 비롯한 해외 온라인게임 보안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소성렬기자

미래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논한다

전문가 강의를 통해 새로운 소재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는 2009 문화콘텐츠 창익 워크숍 '스토리텔링 2015'가 29일부터 11월27일까지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워크숍은 현업에 종사하는 감독·작가·프로듀서 등 콘텐츠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과학·의학·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와 질의응답, 토론 시간을 갖는다.

창작자들은 새롭게 접한 소재를 가공해 공상과학 영화나 다큐멘터리, 범죄 및 법정 드라마 등을 제작할 수 있다.

이날 강의에는 뮤지컬 '김종욱 찾기' '형제는 용감했다'의 장유정 연출가와 KBS 드라마 '아가씨를 부탁해'의 김은희 작가, SBS 드라마 '바람의 화원'의 김형욱 프로듀서 등 쟁쟁한 현직 창작자들이 수강생으로 참가해 더욱 눈길을 끈다.

워크숍 첫날인 29일에는 '두려운, 하지만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보고'라는 주제로 범죄 심리와 과학수사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탈레반 한국인 피랍 사건을 해결하기도 한 인질 협상 전문가 이종화 경찰대 교수가 인질 협상에서

29일~11월27일까지 '스토리텔링 2015' 개최 방송 프로듀서·작가 등 현직 전문가들 강연

벌어지는 심리 게임에 대해 생생히 증언한다.

둘째 주(11월6일)에는 줄기세포 전문가 정형민 차병원 전문의와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강사로 나서 한국적 SF의 가능성을 논한다. 줄기세포, 인간 복제 등 논쟁적인 과학기술과 이로 인한 사회현상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주(11월13일)에는 북한 영상 취재 전문가인 조천연 PD와

이철기 동국대 교수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와 남북문제를 다룬다. 넷째 주(11월19일)에는 '서른 살이 심리학에게 묻다'의 저자 김해남 정신분석연구소 소장이 상담 심리를, 황상민 연세대 교수가 디지털 시대의 심리학을 강의한다. 마지막 주(11월27일)에는 금태섭 변호사와 박철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정 안팎 이야기와 생생한 체험담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을 기획한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용관 인력양성본부장은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소재와 스토리텔링의 진화도 필수적"이라며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이번 워크숍이 다채롭고 현실감 있는 소재를 발굴해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성렬기자

어도비 글로벌 디자인공모전 수상작 발표

한국, 아시아 유일 최우수 수상 영예

한국어도비시스템즈는 28일 전세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대의 디자인·필름 대회인 '제9회 어도비 글로벌 디자인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로 개최 9회에 접어드는 '어도비 글로벌 디자인 공모전(ADAA)'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학생 그래픽디자이너, 포토그래퍼, 일러스트레이터, 애니메이터, 디지털 필름메이커, 개발자, 컴퓨터 아티스트를 선발하는 행사다.

이번 ADAA 시상식은 국제그래픽디자인협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 베이징 '국제그래픽디

자협회(Ic ograd) 세계디자인회의'에서 진행됐다.

특히 올해의 ADAA 공모전에는 세계 37개국에서 3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작품을 제출해 역대 최고의 참여 기록을 세웠다.

어도비는 지난 25일, 중국 베이징의 국가공연예술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제9회 ADAA의 12개 부문 수상작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작을 낸 국가로, 총 12개 부문 가운데 2개 부문에서 최우수 수상작을 내며 3년 연속 수상작을 내는 쾌거를 이뤘다. /소성렬기자